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10, No. 10, pp. 2846-2856, 2009

경영학과 비영리부문의 교과과정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노미진[1*]
[1]경북대학교 경영학부

Curriculums in the Nonprofit Sector of th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Focused on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Mi-Jin Noh[1*]
[1]**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경영학에서 비영리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조직측면에서 진행되어 왔으므로, 비영리 부문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경영학부 및 석사과정에서 비영리 관련 과목의 개설 정도를 조사하고 분석한 후, 국내 대학교의 비영리 관련 과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Wish & Mirabella(1998)의 연구를 기반으로 비영리 분야를 제도화 수준, 교육수준, 커리큘럼 수준으로 분류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경영학부 및 석사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비영리 관련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대학교에 비해 국내 대학교의 비영리 분야에 대한 제도화 수준, 교육수준, 커리큘럼 수준은 낮은 편이였다. 국내 대학교의 비영리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 분야의 연구소 및 학위과정 개설, 전문가 육성, 교과과정 개설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There has been minimal research regarding nonprofit sectors in th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any research have processed a structure aspect. And there is no studies of curriculums in nonprofit sectors. Therefore,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xamine the degree of opening about nonprofit subjects in th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BA which are established in the main universities of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And it is to find the activation plans about subjects relevance to nonprofit in domestic universities. We classified the systematization level, educational level, and curriculum level based on the Wish & Mirabella(1998), and analyzed nonprofit curriculums opened in th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BA of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The results shows that the systematization level, educational level, and curriculum level in domestic universities are lower than universities of United States. This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needs for the research institutes of the nonprofit sector, establishment of degree courses, education of expert, curriculum opening and others to activate the nonprofit field in domestics universities.

Key Words : Business school department; Curriculums; Nonprofit Sector; Case study

1. 서론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며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은 다양화 되었으며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 또한 달라지게 되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라고 불리어지는 현대에서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사라지고 있으며, 다원화 된 수요를 민간에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이 중요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 비영리 조직(NPO: Nonprofit Organization)이며,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비영리조직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비영리 조직은 다양한 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가진 개인이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동의 목적을 추구한다. 비영리 조직은 시민운동, 의료, 교육, 복지서비스 제공, 종교의식, 예술, 문화 활동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교신저자 : 노미진(home37@knu.ac.kr)
접수일 09년 06월 11일 수정일 (1차 09년 09월 01일, 2차 09년 10월 07일) 게재확정일 09년 10월 14일

하고 있다[1].

1995년 미국의 비영리 조직은 160만개로 미국내 전체 조직 및 기관의 6%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1996년 비영리 부문 총수입 규모는 6,703억 달러로 GDP 대비 8.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비영리 부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부터다. 1997년 3월에 미국의 76개 대학에서는 비영리 조직 관리에 대한 비학위 과정을 도입하였으며, 43개 대학에서는 학위과정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비영리 조직 경영에 대한 교육 과정으로 석사과정에서도 다양하게 도입되었다[2].

비영리 조직은 기업과는 달리 이윤 극대화의 요구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나 기업보다는 더 효과적이다. 이에 대다수의 일반 대중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비영리 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한 시민단체가 분출함에 따라 시민운동과 시민 사회론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전체 비영리단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영리 조직이 상당수 국가에서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며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비영리 조직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비영리 조직(NPO) 관련 연구보다는 비정부 조직(NGO) 관련 연구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NGO에 대한 개념정립과 성장요인, 정부와 NGO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3-4]. 경영학 분야에서 비영리 조직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교, 병원, 정부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5]. 이는 경영학 분야에서 조직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비영리 부문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비영리 조직(NPO)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비영리 조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 먼저 이와 관련된 교육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이 체계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는 미국 대학교의 경영학부 및 석사과정(MBA)의 커리큘럼을 조사하고, 각 과정에서 비영리 관련 과목 개설 정도를 조사한 후, 미국 대학교와 한국 대학교의 비영리 관련 교과과정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교과과정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의 대학교에서 비영리 관련 과목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영학에서 비영리 분야의 교육과정을 연구할 때에 초기단계에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실제적인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비영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2.1 비영리 조직에 대한 정의 및 현황

비영리 조직이란 말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용어로서 우리 주변에서 각종 비영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부르는 명칭이며, 이러한 용어는 다양하게 불리어지고 있다. 즉 자원조직, 자선조직, 제3부문, 공익조직, 면세조직 또는 비영리 조직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조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비영리 조직이란 사회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거나 조직의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조직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이윤 창출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을 말한다. 즉, 문화・오락을 위한 조직, 교육・연구를 위한 조직, 건강을 위한 조직, 사회사업을 위한 조직, 자선을 위한 조직 등을 말한다[6]. Gorman(1984)의 연구에서는 비영리 조직이란 비정부 조직이며, 면세혜택을 받고 비영리적인 기관으로 구호와 개발의 목적에 필요한 해외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정의를 하였다. 그리고 InterAction(1985)은 비영리 조직이란 민간 시민들이 조직하고 운영하며, 개발도상국들에 긴급 구호와 장기 지원의 제공을 포함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갖는 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7].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조직을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의를 내리고, 특히 교육・연구를 위한 조직인 대학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대학의 지역 사회봉사는 순수 아카데미즘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와 사회에 대한 봉사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강의와 연구만으로 제한되기 쉬운 사회적 체험의 장과 사회공동체를 지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 대학사회봉사는 미국의 대학사회봉사협의회를 시찰한 후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대학의 사회 봉사활동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사회봉사활

동에 대한 대학 내의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이 요구되었다. 대학들이 사회봉사 관련업무 전담부서는 설치되어 있었지만, 비영리 관련 분야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되지는 못하고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었다[8].

세계적인 비영리 조직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비영리 조직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자들의 비율을 보면, 일본 2.5%, 미국 6.9%, 영국 4.8%, 독일 3.7%, 프랑스 4.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의 총고용자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미국의 비영리 조직의 분야를 살펴보면 의료보건 분야가 52.6%로 경상지출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교육연구 분야로 22.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예술・오락, 사회서비스, 업계단체 노동조합의 경상지출은 미세하지만 약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분야는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표 1] 비영리 조직에 대한 경제적 규모의 비교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고용자수(천명)	1,440	*7,131*	946	1,018	803
총고용자수대비(%)	2.5	6.9	3.7	3.7	4.2
경상지출금액(10억불)	95.1	346.4	47.0	53.9	39.9
경상지출 GDP대비(%)	3.2	6.3	4.8	3.6	3.3
경상지출분야별구성(%)	100.0	100.0	100.0	100.0	100.0
문화예술오락	1.2	3.1	20.5	7.3	17.8
교육연구	39.5	22.7	42.4	11.9	24.8
의료보건	27.2	52.6	3.5	34.5	14.5
사회서비스	13.8	9.9	11.5	23.1	28.9
환경보호	0.2	0.7	2.2	0.7	0.7
지역사회개발,주택,고용	0.3	3.1	7.8	14.8	6.4
시민운동	0.9	0.3	0.7	1.1	2.9
조성재단	0.1	0.4	0.7	0.2	0.0
국제활동	0.5	1.2	3.7	1.5	1.1
업계단체 노동조합	11.4	5.1	7.0	5.3	2.9
기타	4.5	0.9	0.0	0.0	0.0

자료원: 이혜경, 2001

우리나라 비영리 조직 부처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우리나라 전체 비영리 조직은 716개이며, 행정자치부 산하의 조직은 119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환경부 88개, 보건복지부 조직은 87개, 문화광관부는 84개의 비영리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육 인적 자원부는 23개로서 어느 정도는 비영리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대학교에서 개설한 비영리 조직 관련 교과과정을 비교해 보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2] 우리나라 비영리조직 부처별 등록현황

계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법무부	재정경제부
716	119	84	87	88	64	64	23	22	3	12
	정통부	노동부	여성부 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과기부	국가청소년위
	9	25	16	4	13	7	6	9	2	33

자료원: 보건복지가족부, 2007

2.2 한국과 미국의 비영리 교육 현황

최근 들어 비영리기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설립된 기관이 전체의 66.5%를 차지하고 1990년대 후반 이후에도 크게 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비영리 기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 기관의 성장속도가 빠르며, 향후 사회 서비스 영역이 전체 비영리 기관의 고용창출을 주도할 전망이다. 이 기관이 다른 비영리기관에 비해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 교육기관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11].

최근 경영학에서 비영리조직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경영학과 내에 비영리조직 경영을 다루는 교과목이 생겼고 비영리조직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12]. 이처럼 비영리 조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영리 조직과 관련된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며 일부 대학에서는 입문 수준의 강의를 수행하고 있다. 학부는 경희사이버대학 등에 비영리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학원은 경희대 등에 별도의 대학원으로 개설되어 있다. 그 외의 경남대나 상지대는 일반대학원에서 석사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몇 개의 대학은 특수대학원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비영리라는 개념은 시민사회단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비영리 조직은 자발적 조직이며 이들의 역할만으로 문제해결이 미흡할 때에는 정부조직의 역할이 증대된다. 또한 비영리 조직 연구는 전체 비영리 부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의료, 복지서비스, 교육 등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13]. 미국 전역의 대학들은 재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봉사 활동에 참

여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사회봉사 교육 사무국(OCSL)이 1992년 서던미시시피 대학 내에 설립되어 공동체 봉사활동과 사회봉사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 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에 있는 퍼먼 대학의 교과과정은 종교학, 교육학, 예술, 철학, 사회학, 정치학을 포함한 여러 교과과정에 사회봉사 교육이 통합되어 있으며, 워포드 대학 역시 사회봉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14].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은 비영리 교육과정에서 상이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비영리 분야의 교육이 통합적인 측면에서 체계화되어 있는 미국의 대학원 과정에서의 교육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비영리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2.3 경영학에서 비영리분야의 연구동향

지금까지 경영학에서 비영리분야에 대한 연구는 학교, 병원, 정부 및 지방정부,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 연구들은 비영리조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특히 학교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비영리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학교를 연구하고 있다.

하고 있지만 경영학 분야 비영리 관련 교과과목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경영학분야에서 비영리조직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경영학분야의 비영리조직에 관한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둘째, 경영학에서 각 세부분야별 연구를 보면, 회계나 마케팅 분야에서 비영리조직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재무관리분야에서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편이다. 셋째, 경영학에서 비영리조직에 대한 연구를 주제별로 보면, 비영리조직의 회계, 경영통계 및 인력계획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에 관한 연구, 마케팅에 관한 연구, 지식경영과 정보화에 관한 연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5].

이처럼 경영학에서 비영리분야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회계와 마케팅 분야에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영학에서 각 분야별로 비영리부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경영학에 대한 비영리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2.4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국 대학교의 경영학부 및 석사과정(MBA)에서 비영리분야와 관련된 개설과목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커리큘럼에 대해 분석한 후, 한국 대학교의 커리큘럼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US News and World Report(2008)가 평가한 미국의 상위 10위권에 해당하는 대학교의 경영학부와 석사과정 커리큘럼 중에서 비영리분야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국내 대학교의 경영학부 및 경영학 석사과정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분석하기 위해서 국내 대학교의 교과과정을 조사한다. 한국에서는 경영학부 또는 경영학 석사 과정별 순위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대학평가 전국 순위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경영학 석사과정을 분석한다. 선정된 학교는 표 3에 정리하였다. 이들 대학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교의 비영리 분야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학부 커리큘럼과 경영학 석사과정 현황에 대하여 Wish & Mirabella(1998)의 연구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인 분석 기준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과 미국의 상위 10위 대학교

순위	한국대학교	순위	미국대학교
1	포항공대	1	Harvard University
2	KAIST	2	Stanford University
3	서울대학교	3	Northwestern University (Kellogg)
4	연세대학교	4	University of Michigan - Ann Arbor (Ross)
5	고려대학교	4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6	성균관대학교	6	Dartmouth College (Tuck)
7	한양대학교	7	University of Virginia (Darden)
8	서강대학교	8	Duke University (Fuqua)
9	이화여자대학교	9	University of California - Berkeley (Haas)
9	인하대학교	10	Columbia University(NY)

첫째, 비영리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화 수준을 살펴본다. 대학교 전체에 비영리 분야와 관련된 연구소가 있는지 또는 경영학부나 경영학 석사과정에 비영리 분야 학위 과정이나 비학위 과정 또는 세부 전공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각 학교별로 비영리분야에 대한 관심 및 지원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비영리분야의 성장가능성과 제도적인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경영학부와 경영학 석사과정의 비영리 분야에 대한 교육 수준을 연구해본다. 경영학부와 경영학 석사과정에서 비영리 분야와 관련된 강의가 얼마나 개설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비영리분야와 관련된 커리큘럼이 전문적인 수준인지 일반적인 수준인지를 평가한다. 경영학에서 비영리 분야의 전반적인 강의개설 정도와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미흡한 분야의 강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

여 개선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경영학부와 경영학 석사과정에서 비영리 분야에 대한 커리큘럼이 얼마나 잘 개설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비영리분야 윤리학, 사회봉사, 비영리 기업 마케팅, 비영리 기업 관리기술, 비영리 기업 인사관리라는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경영학에서 각 세부분야별로 비영리분야의 교과과정 개설정도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을 알 수 있다.

3. 교과과정에 대한 사례분석

한국과 미국의 대학별로 경영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비영리부문의 교과과정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대학교의 비영리 관련 교과과정에 대하여 제도화 수준, 교육수준, 커리큘럼 수준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3.1 제도화 수준

국내의 대학교와 미국에 있는 대학교의 제도화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국내 대학교 상위 10위를 중심으로 비영리 분야의 제도화 수준을 분석하였다.

첫째, 포항공과대학교는 비영리 조직과 관련된 커리큘럼이나 연구소는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비영리 조직에 관한 연구정보나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학교는 공과대학을 특화시킨 대학교로서 비영리보다는 영리 목적을 중심으로 모든 교과과정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공학적인 연구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측면에서 미비한 부분이 많았다. 또한 경영학 석사과정으로 학위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게 산업경영이라는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주로 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커리큘럼이 제공되고 있다. 많은 커뮤니티가 있지만,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공학적인 연구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측면에서 보면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KAIST는 비영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 학교는 산업체가 만족하는 인재양성 및 배출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비영리 기업 실무자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 및 제반 산학협동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테크노경영연구소를 두고 있지만 비영리 분야 연구소로서의 성격은 약한 편이다. 셋째, 서울대학교는 다양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영리 관련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도 커뮤니티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 분야 학위과정이나 비학위 과정은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비영리 분야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도화를 시도하려고 하며, 종합대학교로서 비영리 분야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연세대학교는 국내 대학교 10개 중에서 비영리 분야 제도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대학교였다. 연세대학교는 선진국에서 비영리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됨을 고려하여 한국의 토착적인 비영리부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교류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또한 복지사회와 NPO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NPOs, NGOs의 조직 리더 및 관련 정부 조직의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개념적 이해와 현실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도 개설하고 있다. 또한 최고경영자과정에서 기업체의 최고경영자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의 경영자들도 모집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교수님들도 비영리단체 학회에 가입하여 많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비영리 분야 연구소뿐만 아니라 비영리 분야 비학위 과정도 운영되고 있었다. 국내 대학교 중에서는 비영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고려대학교는 제도적으로 비영리 분야 초기 도입학교였다. 비영리 단체나 연구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학위과정이나 비학위 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여섯째, 성균관대학교는 비영리 분야 연구소나 비영리 분야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림회관이라는 것을 운영하여 무료로 결혼이나 행사 등을 지원해 주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비영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한양대학교는 행정대학원에서 NGO 학과와 NPO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비영리학과는 전문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과목들도 개설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비정부 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양대학교는 전반적으로 비영리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덟 번째,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는 비영리분야와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교내 봉사활동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었다.

미국의 상위 10개 대학교에 대한 비영리부문 제도화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버드 대학교는 전체대학에서 학제간 연구를 위하여 비영리 조직 연구센터

를 운용하고 있으며, 비영리와 관련된 다양한 강좌들이 전문적으로 개설되어 있었다. 또한 비영리 분야의 연구소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도적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스탠포드 대학교는 비영리 조직 전략으로 새로운 교육 프레임워크, 조직적인 임무, 전략적인 활동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비영리 조직과 관련된 기관, 전문가, 세미나, 강연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비영리 조직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노스웨스턴(Kellogg) 대학교는 비영리 조직 관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영리 관리 영역에 대한 교육과 실제적인 학위과정도 운영되고 있다. 비영리 조직과 관련된 커뮤니티는 연구, 사례조사, 컨설팅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관련 연구도 수행되고 있으며, MBA 커리큘럼에서 비영리 관련 과목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 학교는 비영리 분야의 제도화가 잘 되어 있었으며, 비영리 분야 연구소뿐만 아니라 학위과정과 비학위 과정이 모두 개설되어 있어서 비영리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네번째, Michigan-Ann Arbor(Ross) 대학교는 비영리 조직과 공공 기업 경영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비영리 관련 과목에서 효과적인 파트너십 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받게 된다. 다섯째, 펜실베니아 대학교(워튼 스쿨)는 자선단체라는 커뮤니티와 펜실베니아 대학교 자체로 운영하는 이웃과의 커뮤니티가 있다. 대부분의 워튼 스쿨 학생들은 이 두 개의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하며, BizWorld라는 비영리조직에서는 비즈니스와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분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자원봉사로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비즈니스 설계, 제조, 마케팅, 제품판매 등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영리 분야 제도화 수준이 어느 정도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Dartmouth College(Tuck)는 MBA 학생들에게 비영리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영리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일곱 번째, 버지니아 대학교는 비영리 비즈니스 윤리 조직으로 ERC(Ethics Resource Center), EOA(Ethics Officer Association)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비영리 리더, 직원,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과 운영, 마케팅, 재무, 법적 이슈 등의 커리큘럼으로 수료증을 제공하고 있다. 여덟 번째, 듀크 대학교는 비영리 경영 인증 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은 모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도 이루어진다. 또한 비영리 리더쉽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비영리 조직은 건강, 교육, 환경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홉 번째, California-Berkeley(Haas) 대학교는 비영리와 공공 관리(Nonprofit & Public Management: NPM)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PM 프로그램의 목적은 Hass의 학생들이 벤처, 공공기관, 비영리 조직에서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 경영, 기업 역량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MBA 학생들이 수강하게 되며, 비즈니스 커리큘럼에서 필수과목으로 이수를 하여야 한다. 열 번째, 콜럼비아 대학교는 Social Enterprise Club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클럽은 사기업과 공공기업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학교는 비영리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학부는 봉사활동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비영리 분야의 제도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4와 같으며, 비영리 분야의 제도화 수준을 비영리분야 연구소, 비영리분야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분류하였다. 비영리 분야 연구소는 학교에서의 운영 여부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비영리 분야의 학위과정이 제도적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비영리 분야의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으로 분류를 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의 대학교는 비영리 분야의 제도화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소한 비영리분야와 관련하여 하나의 제도는 보유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표 4] 비영리 분야의 제도화 수준

분류	국내대학교										미국대학교									
	PT	KA	SE	YD	KD	SK	HA	SD	EW	IN	HA	ST	ND	MI	PE	DA	VI	DU	CA	CD
비영리분야연구소			○	○	○		○				○	○	○	○	○	○	○	○	○	○
비영리분야학위과정							○						○	○		○		○	○	○
비영리분야비학위과정		○		○							○	○	○	○	○	○	○	○	○	○

PT: 포항공대, KA: KAIST, SE: 서울대학교, YO: 연세대학교, KO: 고려대학교, SK: 성균관대학교, HA: 한양대학교, SO: 서강대학교, EW: 이화여자대학교, IN: 인하대학교, HA: Harvard University, ST: Stanford University, NO: Northwestern University (Kellogg), MI: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Ross), PE: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DA: Dartmouth College (Tuck), VI: University of Virginia (Darden), DU: Duke University (Fuqua), CA: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Haas), CO: Columbia University (NY), 이하 동일

[표 5] 비영리 분야의 교육수준

분류	국내대학교										미국대학교									
	PT	KA	SE	YD	KD	SK	HA	SD	EW	IN	HA	ST	ND	MI	PE	DA	VI	DU	CA	CD
전문수준교육							○				○	○	○	○	○	○		○	○	○
중급수준교육			○	○	○												○			
일반수준교육		○																		

대학교는 실무자 중심 교과과정까지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국내의 대학교는 비영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수준도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비영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거나 비영리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3.2 교육수준

국내 대학교의 비영리분야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항공과대학교는 비영리 분야 관련 교육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제도적으로도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교육으로도 비영리 관련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 둘째, KAIST는 정규교과과정으로 비영리 분야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는 있지 않지만 비영리 관련 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최고경영자과정은 관리자와 최고경영자들이 단기간 내에 최신 경영기법을 접하고 이해하며 실제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영리 분야에 대한 반영수준이 낮은 편이다. 셋째,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비영리 분야 교육을 전문적인 수준에서 수행하고는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는 NPOs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비영리 단체의 경영자들도 모집하고 있다. 넷째,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는 비영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미비하며 비영리분야와 관련된 교육제도도 미흡한 수준이다. 하지만 한양대학교는 비영리분야와 관련하여 전문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는 NGO(시민단체) 학과와 NPO(비영리 단체) 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복지국가, NGO 외 신사회 운동과 NGO 등의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단체는 소비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비정부 기관이다. 또한 대학원으로 경영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과정으로는 비영리 성격을 포함한 경영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미국 대학교의 비영리 분야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첫째, 하버드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노스웨스턴(Kellogg) 대학교, Michigan-Ann Arbor(Ross) 대학교, 펜실베니아 대학교(워튼스쿨), Dartmouth College (Tuck), 듀크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California- Berkeley(Haas) 대학교는 비영리 분야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들은 비영리 관련 교과 과정을 도입하여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는 비영리 조직 입문, 비영리 조직 리더십, 비영리 조직 재무관리, 보건 등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Dartmouth College(Tuck)는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 기업가 정신, 실제적인 윤리 등이 개설되어 있다. 둘째, 버지니아 대학교는 비영리 분야의 교육이 중급수준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한 10개의 미국 대학교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비영리 분야의 교육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비영리 분야의 교육수준은 전문수준교육, 중급수준교육, 일반수준교육으로 분류를 하였으며, 전문수준교육은 비영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문적으로 교과과정에 이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여 비영리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과목을 말한다. 그리고 중급수준교육은 전체 강좌를 비영리 분야로 개설한 것은 아니지만 세부전공 과목으로 비영리 관련 용어를 사용하여 개설한 과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수준교육은 교과과정에서 일부분이 비영리 관련 성격을 지닌 과목을 교육하게 된다면 일반수준교육으로 분류를 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대학교는 비영리 분야의 교육수준이 낮은 수준인 반면에 미국의 대학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대학교는 비영리 분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 분야 교육에 대한 전문성 또한 확보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내 대학교의 비영리 분야 교육은 일반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3.3 커리큘럼 수준

국내 대학교의 비영리 분야 관련 경영학부 및 석사과

정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KAIST는 비영리 관련 커리큘럼을 잘 반영하고 있는 학교이다. 비영리분야 윤리학, 사회봉사, 비영리기업에 대한 인사관리 분야를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봉사서클이나 개인적인 동호회와 관련된 활동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 교육은 경영공학전공, MBA, EMBA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영공학전공은 경영관리(전략 및 조직, 마케팅, 기술 및 생산경영, 국제경영, 환경경영, 기술경영), 정보기술(MIS, Databases, 지식경영시스템, 통신경제 및 통신정책, 통신경영), 경영분석(재무학, 금융공학, 회계학, 경제학, 통계학) 등 3분야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다. MBA 프로그램은 제조업은 물론 첨단산업이나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혁신과 경영지식을 통합하여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는 경영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미래 CEO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EMBA는 중견근로자 및 임원들의 자기개발 욕구와 차세대 CEO가 될 기업의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전략, 재무, 마케팅, IT 등 세계적 수준의 경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한양대학교의 경영학부에서는 사회봉사측면에서 비영리분야를 반영하고 있다. 특수대학원에서 NGO와 NPO 전공을 개설하고 있기에 경영학부에서 이런 과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NGO와 NPO전공에서는 비영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복지국가, NGO와 시민사회, 신사회운동과 NGO, 풀뿌리 공동체, 비영리 마케팅, 비영리 경영론, 기부문화론, 모금론, 기업 사회공헌, 사회자본과 시민사회, 자원 봉사론을 개설하고 있다.

셋째, 서강대학교는 비영리분야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커리큘럼에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 되면서 윤리경영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은 기업생존의 필수조건이자 경쟁력의 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윤리경영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윤리의식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영학부에서는 '현대기업과 기업윤리'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교양과목으로 크게 인간, 신앙, 윤리, 역사과목 중 한 과목씩을 이수하게 하여 윤리의식을 갖춘 경영인의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넷째, 포항공과대학교는 산업공학분야에서 생산공학분야, 인간공학분야, 최적화공학분야, 정보체계공학분야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개설과목으로는 생산공학, 인간공학, 최적화공학, 정보체계공학이라는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비영리분야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커리큘럼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연세대학교는 MBA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과정으로는 관리경제학, 회계학, 경영통계학, 조직행동론,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정보, 생산관리, 정보기술관리, 전략경영, 재무, 국제경영, 회계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수업에서 기업윤리, 직업윤리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와 관련된 과목은 필수이수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하지만 비영리 과목을 중심으로 반영한 커리큘럼은 미비한 편이다. 그 외의 대학교의 경영학부 커리큘럼은 비영리분야에 대한 반영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의 대학교는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학과 커리큘럼에 반영률이 낮았으므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에 있는 대학교의 비영리 분야 관련 경영학부 및 석사과정 커리큘럼을 살펴보았다. 첫째, 하버드 대학교, 노스웨스턴(Kellogg) 대학교, 버지니아 대학교, 듀크 대학교, California-Berkeley(Haas) 대학교, 콜럼비아 대학교는 비영리 관련 과목을 체계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는 비영리분야의 커리큘럼이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었으며, 경영학, 법학, 교육학, 신학, 보건학, 의학, 환경, 인문학 등의 분야에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비영리 조직과 관련된 과목으로는 비영리 조직 입문, 비영리 조직 리더십, 비영리 조직 재무관리, 보건, 지역사회, 경제 발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강좌들이 전문적으로 개설되어 있다. 경영학 석사과정(MBA)에서 개설된 과목으로는 일반적인 재무관리, 재무 보고서 작성법과 관리방법, 리더십과 조직적인 행위, 리더십, 기술 관리와 운영관리, 정부와 국제적인 경제, 기업가 정신, 회계, 협상, 전략 등의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윤리적인 이슈를 다루기도 하지만 제빵 관련 서적이나 다양한 운동관련 센터도 보유하고 있다.

둘째, 노스웨스턴(Kellogg) 대학교의 경영학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핵심 과정으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회계,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된 수학,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된 통계, 경영전략, 재무관리, 미시경제학 분석, 마케팅 관리, 운영관리, 가치분석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제품개발, 물류, 공급망 관리, 제조와 관련된 과목들도 개설되고 있다. 그리고 윤리와 자선활동과 관련된 과목은 직접적으로 개설하고는 있지 않지만, 비영리 관리 조직 과목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포함시켜서 그러한 과목을 공부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비영리분야 윤리학, 비영리기업 마케팅, 비영리기업 관리기술, 비영리기업 인사관리 이외에도 비영리 재무, 비영리분야의 정부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California-Berkeley(Haas) 대학교는 비영

[표 6] 비영리 분야에 대한 커리큘럼 수준

분류	국내대학교										미국대학교									
	PT	KA	SE	YD	KD	SK	HA	SD	EW	IN	HA	ST	ND	MI	PE	DA	VI	DU	CA	CD
비영리분야 윤리학		○									○		○				○	○	○	○
사회봉사		○	○	○	○	○	○	○	○	○	○	○	○				○	○	○	○
비영리기업 마케팅											○		○				○	○	○	○
비영리기업 관리기술											○		○				○	○	○	○
비영리기업 인사관리		○									○	○	○				○	○	○	○

리 조직의 전략, 비영리 재무관리, 비영리 조직에 대한 마케팅뿐만 아니라 자선파티도 포함하고 있을 만큼 비영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콜럼비아 대학교는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비영리 리더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스탠포드 대학교의 비영리 커리큘럼은 비영리리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관리, 경제전략, 다른 비영리리더와의 관계 네트워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비영리기업 마케팅이나 비영리기업 관리기술에 대한 커리큘럼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경영학 석사과정에서 개설된 과목으로는 일반적인 경영관리, 재무관리, 리더십과 전략, 마케팅, 협상, 기술과 운영, 고객 관련 프로그램, 국제적인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비영리 조직을 위한 과목과 자선활동 과목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서 비영리 조직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핵심 커리큘럼으로는 데이터와 의사결정 시스템, 마케팅관리, 인적 자원관리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세미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도 포함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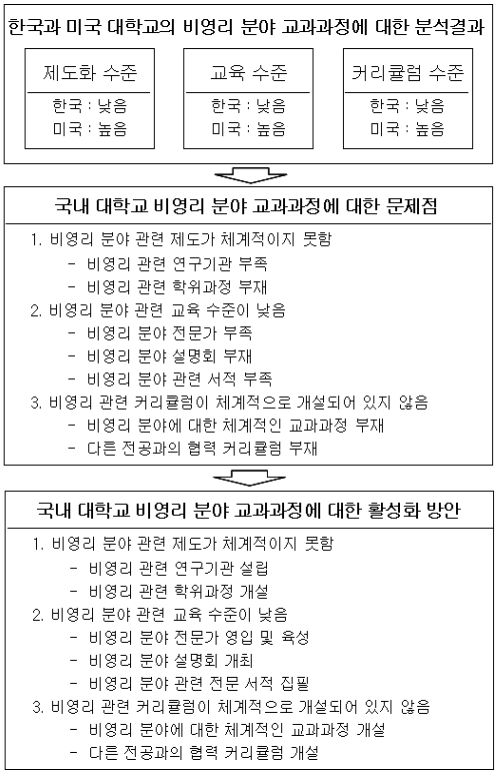
넷째, Michigan-Ann Arbor(Ross) 대학교는 경영학부 및 석사과정에 비영리관련 커리큘럼은 없지만 비영리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워튼 스쿨)의 경영학 석사 과정의 커리큘럼을 보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재무관리, 미시경제, 거시경제, 비즈니스 환경, 윤리와 책임, 경제학, 인적 관리, 리더십과 팀웍, 경쟁전략, 글로벌 전략관리, 마케팅 관리, 의사결정모델, 운영관리, 공급사슬관리, 통계학, 커뮤니케이션 등을 핵심 강좌로 개설하고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환경과 위험 관리, 건강관리, 보험과 위험 관리, 전자상거래 관리, 정보관리 등도 커리큘럼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윤리와 관련된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만 비영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강좌는 미비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Dartmouth College(Tuck)의 비영리분야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MBA 과정으로 개설이 되어 있으며, 비즈니스 윤리, 국제적인 비영리 컨설턴트 프로젝트, 사회적인 분야에서의 기업가 정신 등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비영리 분야에 대한 커뮤니티도 개설이 되어 있으며, 비영리분야와 윤리에 관한 학위 과정도 개설이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기업가 정신, 실제적인 윤리, 사례 연구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비영리 분야 관련 경영학부 및 석사과정 커리큘럼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한국과 미국의 대학교에서 비영리 분야를 고려하여 개설된 과목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였다. 다수의 미국 대학교는 비영리관련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비영리 관련 센터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와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비영리 관련 커리큘럼이 잘 구성되어 있는 학교였다. 경영학부에서 필요한 비영리 관련 입문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을 잘 반영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 대학교에서 비영리 조직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커리큘럼을 설계할 때에 충분하게 고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대학교는 커리큘럼에 비영리 조직에 대한 관념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비영리기업 마케팅, 비영리기업 관리기술, 비영리기업 인사관리와 같은 커리큘럼은 미흡한 수준이므로 국내 대학교에서 커리큘럼을 설계할 때에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이 체계화되어 있는 미국 대학교의 경영학부 커리큘럼을 조사하고 이와 더불어 경영학 석사과정에서 비영리 관련 과목 개설 정도를 조사하였다. 제도화 수준, 교육 수준, 커리큘럼 수준을 기준으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여 분석한 후, 한국 대학교의 비영리 관련 과목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그림 1 참조).

분석 결과, 미국에 비해 한국은 비영리 분야의 제도화 수준, 교육 수준, 커리큘럼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국내 대학교의 비영리 분야 활성화 방안

첫째, 한국은 비영리 분야의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대학교에 비영리 관련 연구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 관련 학위과정도 개설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내에 비영리 관련 연구기관을 설립해서 비영리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비영리 분야와 관련된 학위과정을 개설하게 된다면 비영리 분야의 교육 제도는 전문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비영리 관련 분야의 교육 수준이 낮다. 교육 수준이 낮은 이유는 비영리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 전문가, 교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비영리 분야의 중요성을 낮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설명회, 강연회, 서적 등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영리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육성해서 비영리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전문적인 서적을 발간하여 누구나 비영리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국내 비영리 분야의 교육 수준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비영리분야에 대한 교수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또한 경영학 전문가들의 비영리분야에 대한 교육시스템이나 경험이 부족하기에 다른 학문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비영리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학, 사회학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영학 분야의 비영리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국내 대학교에서는 비영리 관련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비영리 분야 관련 교과과정이 부재되어 있으며, 다른 전공과의 협력 커리큘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영리 분야 커리큘럼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을 다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과의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비영리 관련 과목에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개설하여, 필수과목에는 비영리 부문 입문, 비영리조직에 대한 마케팅, 비영리 조직에 대한 인사관리, 비영리 조직에 대한 재무관리 등의 과목이 필요하다. 선택과목에는 비영리 분야에 대한 현장학습, 비영리 분야의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반영한 커리큘럼 개설이 필요하다. 국내 경영학부 대학원 과정에서 이러한 과목을 개설하여 전공과목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에 비해서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의 커리큘럼이지만 경영학적 관점에서 비영리부문 관련 과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기초과목부터 개설한다면 비영리 분야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경영학 분야에서 비영리 분야의 연구는 거의 수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경영학에서 비영리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초기 단계에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현재 경영학 분야 중 주로 인적자원, 마케팅 분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지만, 재무관리 분야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므로 비영리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교육 커리큘럼에 재무관리의 비중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경영학부 및 석사과정에서 체계적인 비영리분야 커리큘럼 개설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살펴보면, 비영리 단체의 경영이란 관점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학습자는 비영리분야의 기금모음, 마케팅, 자원봉사, 조직설계, 회계, 재무관리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비영리 분야의 중요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학습하게 되며, 영리 단체와 비영리 단체의 차이점을 파악하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기부문화, 사회봉사활동 등에 대한 필요성을 학습자에게 인지시킴으로써 비영리 교육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비영리 분야에 대한 경영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분석 연구를 수행한다면 좀 더 향상된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비영리 분야의 활성화 방안은 객관성이 부족하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분석을 수행하여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안하면 우수한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상필, “비영리단체(NPO)의 개념틀 정립을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제8권, pp. 159-182, 1999.

[2] N. B. Wish, and R. M. Mirabella, "Curricular Variations in Nonprofit Management Graduate Programs", Nonprofit Management & Leadership, Vol. 9, pp. 99-109, 1998.

[3] 김시영, 노인만, “지방정부와 NPO간 협력관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pp. 203-227, 2004.

[4] 정무권, “정부와 NGO의 관계: 개념화의 문제와 이론적 쟁점”, 사회과학논평, 제21권, pp. 93-139, 2001.

[5] 한준구, 문형구, “비영리조직의 경영학적 접근에 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제2권, 제2호, pp. 47-98, 2003.

[6] 서용구, 시장을 창조하는 마케팅 시장에 끌려가는 마케팅, 시대의 창, 2003.

[7] 주성수, 시민사회와 3섹터, 한양대학교, 1999.

[8] 이은승, 이성철, “대학사회봉사 관리체계 분석 연구”, 홀리스틱교육연구, 제11권, 제1호, pp. 99-115, 2007.

[9] 이혜경, “일본의 비영리부문: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특성,” 동서연구, 제13권, 제1호, pp. 5-49, 2001.

[10] http://www.e-welfare.go.kr.

[11] 황덕순, “한국 비영리기관의 현황과 특징”, 월간노동리뷰, pp. 27-38, 2007.

[12] 한준구, 문형구, “비영리조직의 경영학적 접근에 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제.2권, 제2호, pp. 47-98, 2003.

[13] 김승현, “미국의 비영리부문에 관한 연구: 역할과 성격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2호, pp. 27-48, 1997.

[14] 미국방부/국제정보프로그램국, "미국의 대학교육", Society & Value, pp. 1-63, 2005.

[15] http://usnews.com

[16] http://maincc.hufs.ac.kr

[17] http://www.postech.ac.kr

[18] http://www.kaist.ac.kr

[19] http://www.snu.ac.kr

[20] http://www.yonsei.ac.kr

[21] http://www.korea.ac.kr

[22] http://www.skku.ac.kr

[23] http://www.hanyang.ac.kr

[24] http://www.sogang.ac.kr

[25] http://www.ewha.ac.kr

[26] http://www.inha.ac.kr

[27] http://www.hbs.edu

[28] http://www.stanford.edu

[29] http://kellogg.northwestern.edu

[30] http://www.bus.umich.edu

[31] http://www.wharton.upenn.edu

[32] http://www.tuck.dartmouth.edu

[33] http://www.darden.virginia.edu

[34] http://www.duke.edu

[35] http://www.gsb.columbia.edu

[36] http://www.haas.berkeley.edu

노 미 진(Mi-Jin Noh) **[정회원]**

- 2001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06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06년 4월 ~ 2008년 2월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08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

<관심분야>
경영교육, 기술사업화, 모바일 비즈니스